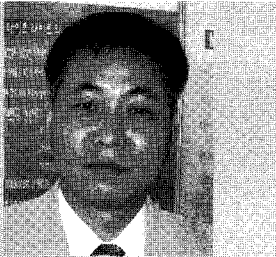


N-N 방청 코팅기술 개발, 리사이클 가능 기화성 방청 기술 지식 및 제조설비 완비, 발전 거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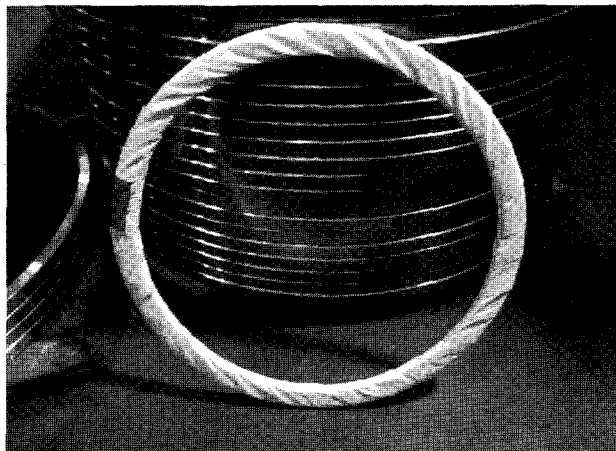
정용주
(주)오케이팩 대표이사

기화성 방청제는 기화가스가 금속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종 금속 제품을 운반할 때 포장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내 굴지의 기화성 방청제 제조업체를 제외하고 그동안 기화성 방청제 업계는 화합물의 기초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타사의 제품을 구매해 제품에 활용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업계 상황에서 기화성 방청제 화합물의 기초기술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을 완벽히 소화하여 품질 향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주)오케이팩(대표이사 정용주)을 찾았다.

1992년 8월 홍일특수포장산업사로 설립, 기화성 방청지(VCI Paper)를 생산하면서 창립된 (주)오케이팩은 1년후 산업용포장지를 생산, 발전해 왔다.



▲ 오케이팩 마대방청



▲ 오케이팩 기화성 방청제 생산설비

오케이팩은 창립 당시부터 기화성방청지와 산업용 포장지를 같이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시작, 10여년간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최대의 제품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주)오케이팩은 96년 현재의 오케이팩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PE / OPP / 마대합지 기화성 방청지와 기화성 방청필름, 기화성 방청마대, 기화성 방청 진공포장재 등을 생산,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업계 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동안 오케이팩은 주로 수출용포장에서 사용되어 오던 진공포장지에 방청의 기능을

첨가시킨 진공방청지를 개발함으로서 과거 진공포장지를 사용하면서 방청필름을 동시에 사용하던 불편을 개선시키고 작업효율과 경제성을 갖췄으며 '강도가 강화된 방청지'를 개발,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방청지가 갖고 있던 인장과 파열강도를 현격히 신장시키고 자원의 리사이클링을 강화시켰다.

특히 지난 해 8월 오케이팩은 ISO 9001:2000을 획득, 제품과 업체의 환경에 맞추어진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스템적 기반을 갖추고 품질관리의 혁신을 추구해 온 결과를 대외에 인정받았다.

현재, 오케이팩은 해상 운반과 같은 다습한 환경에서 운반할 때 습기로 인한 제품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내피용으로 사용되는 방수지, 소·중량물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포장지, 철강용 등 중량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포장지 등, 산업용 포장지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포장지로 기화성방청제, 방청필름, 기화성방청파우더 등의 방청포장재와 공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제품 기초기술 보유

오케이팩의 기화성 방청필름은 습기에 강하고 다양한 규격과 가공이 용이할 뿐 아

OKPack

나라 비닐의 투명성으로 인해 포장 내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정용주 사장은 “오케이팩은 꾸준한 연구개발과 전 산업분야에 걸친 포장지 생산으로 전국에 걸친 영업망을 지니고 있으며 국방부 및 철강산업, 타이어 및 고무산업, 기계자동차, 석유화학, 수출포장 등 국

내 우수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해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기화성 화합물은 인체에 해로운 독성, 특히 발암의 효과가 있는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포장물의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일반적으로 금속의 종류가 다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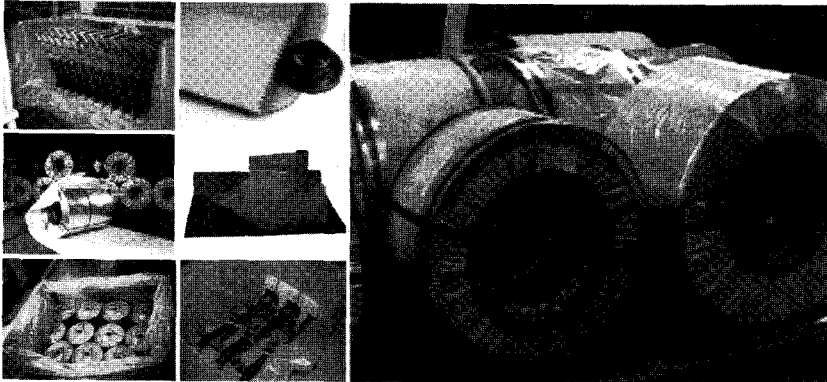
여 그에 따른 철용과 비철용 또는 공용으로 제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화성 방청제의 단점을 극복, 오케이팩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작업자의 안전성이나 피포장물의 잔여 화학물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켰으며 기화성 방청제품들을 공용으로 적용시켜 특별한 구별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해왔다.

정용주 사장은 “작업환경에서 기화성 제품을 적용하다 보면 제품의 조건이 다양하여 일일이 적용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오케이팩은 기화성 방청의 기초기술과 제조기술 등 기술적 지식과 제조설비를 완비해 제품의 응용력을 갖추고 있다는데 강점이 있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즉, 다양한 환경과 조



▲ 대한민국기술대전 신제품·신기술관에 참가한 오케이팩



◀ 오케이팩이 생산하는 기화성 방청제제품들

건에 알맞는 기화성 방청제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

대한민국기술전 출품, 호평

지난 달 열린 대한민국기술대전에서 오케이팩은 인체무해성 기화성 방청 및 방청코팅제제품과 고온에 변질이 없는 방청파우더 등 신기술제품을 통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기화성 방청제는 수지를 코팅할 때 코팅시 흐름성의 강화를 위해 온도가 높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열로 인하여 기화성 방청제가 기화되면 방청력이 없어지는 점 때문에 코팅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

올해 4월 (주)오케이팩은 N-N(Non-Nitrite) 방청제의 기술과 방청코팅의 기술을 복

합적으로 적용한 N-N 방청의 코팅기술을 개발, 대한민국기술대전에서 신기술·신제품관에 출품함으로써 참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N-N(Non-Nitrite) 기화성 방청제는 FDA에서 승인된 약품만을 사용해 식품포장으로 사용되어도 무해할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청력이 강화된 제품이다. 따라서 개발된 N-N 방청의 코팅기술을 통해 오케이팩은 리사이클이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최첨단 방청지를 생산하게 됐다.

현재 오케이팩은 단순한 제품의 생산과 공급이 아닌 사용업체에 대한 포장컨설팅을 통해 경제적이며 생산성이 보장되는 최적화된 포장자재와 포

장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화성 방청 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정용주 사장은 “포장이라는 것은 제품 뿐 아닌 그 기업의 얼굴임에도 여전히 금전적 비용만을 고려해 과거 포장 방식을 답습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히면서 “결국 제품의 손상과 같은 문제와 회사의 이미지 손실이 야기만큼 포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포장기술 발전에 미력하나마 한 축이 되겠다는 목표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응용 제품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제품생산으로 고객만족을 선도해 온 (주)오케이팩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